



11월 19일 수원포교당 49제에서 '한마음 염불'에 몰두하고 있는 목련회원들. 사진=고영배 기자

# 염불화음으로 극락왕생 염원해요

## 바라밀현장

11월 19일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수원 포교당 경내에 빠른 발걸음 소리가 가득하다. 이날은 한 신도 부친 영가의 49제가 예정된 날. 개나리색 상의에 밤색 조끼를 덧입은 신도들이 법당과 중무소를 중형무진 왕래한다. 마치 가족의 재를 치르듯 각종 공양물과 책자 등을 부지런히 나르고 행기는 모습들이 진지하기 그지없다.

10시, 재가 시작되면서 더욱 분위기는 엄숙해졌다. 법당 한편에 단아하게 앉은 16명의 신도들은 재가 진행되는 내내 힘있는 목소리로 염불을 계속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일념으로 기원하며 곁에 모은 두 손과 지

킵이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겠더라구요."

박순희(47)씨는 그동안 수많은 재와 시다림을 다니며 사별의 순간을 지켜봐 왔다. 그래서 고인의 영정을 마주하며 <반야심경>을 한 소리로 읽을 때, 아마타불과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부를 때, 남겨진 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막연하게나마 깨닫게 됐다. 심여 명이 이루는 염불화음으로 가족들의 맺힌 슬픔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다는 것. 내 지극한 정성으로 영가 육도윤회의 사슬을 끊고 극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염불에 임해온

### 수원포교당 염불봉사단 목련회

### 49제·장례식장 '시다림' 적극 참여

###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 이르도록 염불

### 마음 챙기기 통해 삶의 의미 깨달아

“모든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끌어가고 하다가니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장 짐작해야 할 순간인데 말이죠.” 얼마 전 장

애인 아기의 장례식장에서 그만 복받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송경애(44) 씨. 몸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일이라고 마음 챙기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니 이보다 값진 교육이 어디 있을까를 되묻는 송 씨다.

3개월에 이르는 혹독한 입문교육과 매 주 이어지는 경전공부나 뒷받침 때 더욱 빛나는 목련회. 이들은 염불봉사 외에도 서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봉사도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양로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매년 백중기도 회향 때는 티종교 어르신들까지 초청해 잔치까지 베풀다는 목련회. 염불을 시작한 회원들 봉사의 꽃이 극락에서 목련

회(회장 이경복) 회원들이다.

“우리들의 염불로 영가와 그 가족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저희는 '봉사단'이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복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이경복(49) 목련회장의 말에서 느낄 수

있다. 목련회의 염불봉사는 진실한 마음이 집에서 시작된다. 영가의 안위를 위한 마음 하나로 절에서 치르는 49제는 물론, 병원이거나 장례식장 '시다림(명자를 위한 염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특히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시다림 요정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곳이든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간다. 봉사단 개개인에게는 내일 또다시 돌아올 시간이지만, 고인에게는 다시 없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에서다.

“실제 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염불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명자 앞에 서서 염불을 시작하니 염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 란자니 드 실바 (F)

### 비구니 스님 위상 변화 주역

“부처님께서는 여성들이 정신수련을 함으로써 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다. 영적 개발이나神通(神通)에 있어 여성수행자의 위치는 남성수행자에 필적할만한 것이었다.”(란자니 드 실바의 논문 '과거와 현대의 비구니 수계' 중에서)

현재는 주로 한국과 중국 등 북방불교에서 비구니교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상좌부불교 비구니교단의 중심지는 스리랑카였다. 스리랑카의 비구니 공동체는 BC 3세기에 확립되었는데, 그때는 인도의 다르마스카(Dharmasoka) 황제가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그의 아들 아라하트 마하 다 테라(Arahat Mahinda Thera)를 스리랑카에 보냈을 즈음이다.

당시,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티사(Devanampiyatissa) 왕의 체제였던 아눌라(Anula) 왕비와 그의 궁녀들이 계를 받고 스리랑카 최초의 비구니

이러한 상황은 미륵불이 탄생하기 전에는 비구니승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기존의 스리랑카 비구승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비구니 수계라는 주제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미니 과정을 거친 여법한 비구니승의 수계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산사의 지원아래, 인도 가야(Gaya)시의 중국 사원에서 열린 국제수계식이 열렸다. 이 국제적인 비구니계단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비구니 20

명이 계를 받고 귀국했다. 그 이후 다수의 비구니 수계식이 스리랑카에서 원로 비구스님들에 의해 치러지는 등 비구니승단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스리랑카에는 비구니 스님이 4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들은 이제 비구교단으로부터



란자니 드 실바 '스리랑카사카디타' 회장. 공식 승인을 받은 비구 스님과 나란히 교단 구성원으로 인정

### 교육 통해 청소년 상담 등 사회활동에 전력

승단을 구성한 것이다. 스리랑카의 비구니승단은 왕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11세기까지 번창했지만, 그 이후에는 자취가 사라졌다. 다시 1천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구니승단이 재건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란자니 드 실바 '스리랑카 사카디타' 회장을 중심으로 한 4천여 10계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비구니승의 부활이 이뤄진 때는 1996년 12월 8일. 당시 인도의 대각회(Maha Bodhi Society) 의장이었던 마팔라가마 비푸라사라 스님(Ven. Mapalagama Vipulasara)은 불교의 중흥과 비구니승의 부활을 위해 당시 원로 비구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문을 설하신 인도의 사만타(Samantha)에서 10명의 10계녀(다사

고 있으며 식량, 의복, 주거지, 의약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스리랑카 사회의 중추적인 변화세력인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 '스리랑카 사카디타'를 이끄는 실바 회장은 10계녀와 비구니 스님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 종단과 사회에 봉사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바 회장과 독일 출신의 아야 케마(Ayja Khema, 1923~1999) 스님 등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스리랑카의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은 불교 10여년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비구승들과 거의 평등한 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전에 비구승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어 왔던 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

김재경 기자

## 할아버지 기찬 체조 해보세요

“몸과 마음의 운동인 기체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심신 단련 프로그램 봉사를 펼치는 불자들이 있다. 대구 감천복지재단 '붓다의 집(이사장 서오정)'을 격주로 방문해 무료로 기체조를 가르쳐주는 강수만(44)·이희준(38) 씨가 바로 이들이다.



강수만 복지사가 붓다의 집에서 기체조 무료강의를 펼치고 있다.

기공명상 수련을 전문적으로 받아 온 이들이 복지관을 찾게 된 것은 올 해 초. 어르신 관절 치료차 한 요양원을 방문했다가 복지사의 소개로 무료 봉사를 계획하게 됐다. 평소 기공 명상과 불법의 접목에 관심이 많은

강 씨는 불교복지재단 봉사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강의 시작된 이후 다양한 치료법과 체조를 선보여 복지관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강사가 됐다. 이 씨 또한 불교적 명상에 기초한 기체조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막힌 혈과 관절을 풀어주는 기공명상도 보시를 펼치고 있다.

강 씨는 “기체조는 정신을 집중시키는 내적 효과와 잘못된 자세를 교정·보완하는 외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며 “간단한 기본동작과 기본체

인 맞사지로 어르신들 몸과 마음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밝혔다. 붓다의 집=(053)986-5522

강신재 기자

##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WWW.HYPNOS114.COM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약의식을 행했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을 놓고 있습니다. 최면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금번 한국최면아카데미에서 전생, 빙의 전문가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타인의 영혼 자유에 필수적인 전생퇴행법과 빙의치리법들을 중심으로 최면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총4회, 집중훈련 특별워크샵과정을 통해 단기 완성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자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최면은 인간의 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활동을 실험, 검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제계가 완성된 가장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생과 현생의 업장과 습으로 인해 운명의 고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전생과 현생의 업을 정화시키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풍도이자 궁극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최면아카데미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스스로 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 자신의 전생을 알고 나서 창선할 때마다 밀려들던 알 수 없는 허망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도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깊은 선경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해 고통받는 숙인들과 빙의령에게 이야기하듯 진정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중략 - 또한 여러 불사행 동행하지 않고 이를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한 통찰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기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최면아카데미의 임원진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00사 00 함장

###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최면 이론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의식, 시술방법,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령퇴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정착제 및 통찰, 자기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퇴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4. 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 영가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로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중재치유, 영가치유, 영가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 빙의,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전문화.
7. 치유력향상기법 : 명상강화와 최면유입시에 의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래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E-mail : admin@hypnos114.com



大野 仁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회면선학회 회장 한국교육회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정주대학교 및 다수 대학에서 강의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인증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1월 21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30시간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유심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